

✓ 5-14 최봉선(1925-)이 14살이던 1939년에 평안북도 운산군 북진에서 부자집 아이보개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일본 순사와 헌병이 나타나 최봉선에게 흰 쌀밥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였다. 그가 싫다고 하자 강제로 그를 끌고 5리 가량 떨어진 외딴 집으로 갔다. 거기서 11명의 처녀들과 함께 갇혀 있다가, 중국 사평의 두 역 앞에서 내려 '명월관'이라는 위안소로 끌려갔다.

✓ 5-15 김덕순(1921-)은 16살이던 1937년 자기를 따라가면 잘 입고 잘 살 수 있다고 유혹하는 전라도 남원의 구장 말에 속아 그를 따라 진주로 갔다. 진주에서 일본인에게 넘겨져 10여명의 다른 조선 여성들과 함께 부산으로 끌려가 배를 타고 일본의 니가타와 중국의 어느 항구를 거쳐 중국과 몽골의 국경지대인 하이라루라는 곳으로 끌려갔다.

✓ 5-16 장수월(1922-1996)이 서평양 신발 공장에서 일하던 1941년 9월, 공장의 일본인 감독이 찾아와 한 달을 벌면 석 달을 먹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있으니 함께 가자고 하였다. 그는 가난하게 사는 집식구들을 생각하여 감독을 따라 평양 역까지 나왔는데, 거기서부터 일본 경찰들의 감시를 받으며 7명의 다른 처녀들과 함께 중국의 치치하얼로 끌려갔다. 정송명(1924-)은 1943년 8월 마에다라는 일본인이 '정신대'로 가서 6개월만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그 일본인을 따라 원산으로 갔다. 거기서 다시 부산으로 가서 다른 일본인에게 넘겨져 40여명의 여성들과 함께 대만과 싱가포르를 거쳐 버마 랭군에서 좀 떨어진 '메꾸테라 위안소'에서 '위안부' 생활을 강요 당하였다.

✓ 5-21 김영숙(1924-)은 사리원 도립 병원에서 간호부로 일하던 중 사노 슈지라는 일본인이 자기를 따라가면 '처녀공출'에도 걸리지 않고 여기서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선전하는데 속아 20명의 다른 처녀들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는 연락선에 오르게 되었다. 사노 슈지는 배안에서 여자들을 차례로 강간하였다.

✓ 5-34 로현화(1922-)가 18살 때인 1940년 10월, 평안남도 룡강군 지사리에 살고 있는 지주와 일본인이 찾아와 어머니에게 밥벌이가 좋은 곳이 있으니 일본인에게 딸을 보내자고 하였다. 어머니가 거절하자 일본인이 어머니의 얼굴을 걷어차서 쓰러뜨리고, 그를 강제로 유개화차에 실었다. 20여량 되는 차량에는 조선 여성들이 갇혀 있었는데, 일본군은 유개화차를 밖으로 잠그고 식사 때가 되면 피창문으로 주먹밥을 던져 주었다. 3-4일 지나 중국 목단강에 도착하여 거기서 다시 10여리 떨어진 곳에 있는 일본군 병영으로 끌려갔다.

✓ 5-44 황선옥은 신경에서 자동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일본군 병영에 강제연행되어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했다. 위안소는 철조망으로 둘러쳐진 2층건물이었으며, 위안소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병영이 있었다. 처음 2-3일간 일본군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군인들은 총을 꺼내들

고 쏘아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허리와 등, 다리를 발로 차고 가죽혁띠로 손바닥을 때려 살 가죽이 벗겨져 피가 흐르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연속 달려들었다.

✓ 5-57 김대일(1916-)은 1932년 일본 아사끼에 있는 '텐노지' 병원에서 간호부로 일하던 중 1934년 어느날 밤 병원원장에게 겁탈당했다. 병원 원장도 김대일을 도쿄 제12사단의 '위안부'로 넘겼다. 그는 중국 장춘에 있는 위안소에서 '이시가와 스지에' 또는 방 번호 '12번'으로 불리면서 새벽이면 위안소 앞마당에서 '궁성요배'를 강요당하고 아침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루 평균 30-40명을 상대로 성봉사를 강요당했다. 일본군 6사단의 위안소에 옮겨졌을 때, '하나꼬'라 불리는 여성이 임신을 했는데, 다까라라는 자가 그의 배를 힘껏 걷어차고 칼로 배를 갈라 태아를 끄집어 내어 난탕을 쳤다. 그리고는 그의 배를 칼집으로 끄집어내어 '위안부'들의 목에 차례로 걸어주고는 방바닥의 피를 핥을 것을 강요당했다. 많은 여자들이 기절하였고, 심장이 터져 죽은 여자도 있었다. 한번은 이 다나카라는 자가 끌고와 나도 했으니 너도 하라고 하면서 개를 부추겨 물어뜯게 하고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찬물을 끼얹고 또 달려들었다. 심지어 마취약을 먹인 다음 담뱃불에 휘발유를 묻혀 입과 코, 자궁에 꽂아놓고 불을 부쳐 화상을 입게 하였다. 정옥순(1920-1998)은 광주에서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하다가 17살 나던 해에 도망쳤으나 다시 붙잡혀 무서운 고문을 당했다. 일본군은 정옥순을 쇠몽둥이로 때려 쓰러뜨리고 머리를 내리쳤으며,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입에 고무호수를 넣고 주전자로 물을 부어넣어 배가 불어오르면 널판지를 놓고 그 위에 올라서서 내리눌렀다. 그리고는 도주자 조선 여성에게 표적을 남겨 고통속에 죽게하라고 하면서 옷을 벗겨 철봉에 거꾸로 매달았다. 그 다음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하고는 바늘이 가득 꽂힌 주먹만한 것을 들이밀어 꼭 누르고 가슴과 배, 잔등, 음부에 이르기까지 전신에 입목을 하였다.

✓ 김영숙(1924)은 일본으로 끌려와 나고야, 오끼나와로 끌려다니면서 1달 동안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하다가 다시 상해로 이송되었다. 상해에서는 야외 가설천막에서 성봉사를 하였다. 그 후 대련을 거쳐 서주로 이송되었는데 이곳에서는 한 천막에 5명씩 들게 하고 '도미꼬'라고 이름을 붙여주었다. 매주 토요일에는 1인당 100명의 병사들을 상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무조건 그대로 할 것을 강요하였다. 그래서 토요일을 '죽음의 날'이라고 하였으며 20명 정도의 군인들을 받은 후에는 정신을 잃은 상태에 빠진 채로 성봉사를 강요당했다.

정경영 > 리경생이 16살 되던 해에 임신하게 되자 일본군은 그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꺼내 난탕을 쳐 강물에 던졌으며, 다시는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서 그의 자궁을 들어냈다. 김영숙(1924-)이 임신하여 처녀애를 낳자 일본군 장교가 그 자리에서 짓밟아 죽였다.

✓ 5-84 리춘화(1920-1998)는 목단강을 지나 수양이라는 곳에서 '위안부' 생활을 하였다. 그는 '봉사' 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자주 쇠장대를 두손으로 머리위에 들고 서있는 벌을 받았는데

데, 10kg이나 되는 쇠장대가 조금만 내려와도 회초리로 다리를 때리곤 하였다. 어떤 때는 이런 벌을 받다가 까무러치기도 했다. 또한 전기고문, 기기고문을 받았다. 한번은 '다사꼬'라는 '위안부'가 반항했다고 하여 일본군이 군화발로 그의 뒷머리를 강하게 찼는데 눈알이 튀어 나왔다. '위안부'들이 눈알을 제자리에 넣으려고 했지만 헛수고였다. 그는 그 상태에서 계속 '봉사'에 내몰렸다.

✓ 5.90 정송명은 '메꾸테라 위안소'에서 광복을 맞이하였다. 전쟁이 끝날 무렵 어느날 밤 일본군은 아무 말도 없이 식량도 남겨놓지 않고 저희들끼리 도망쳐버렸다. 정송명을 비롯한 19명의 여성들은 풀뿌리를 캐먹으면서 수림속을 헤매다가 한달만에 타이에 도착하였다. 6개월 후에 조국으로 들어가는 배편을 만나 1947년 경에야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contrast to that of Japanese women who were officially encouraged to give birth as ^{much} ~~many~~ as possible in the wartime.

5.77 The total number of 'comfort women' is estimated to be over 200,000.⁵ From the testimonies of survivors, the majority of the 'comfort women' were ~~the~~ Korean^s under the Japanese domination. From ~~the above, the~~ forcible recruitment and sexual exploitation of the Korean 'comfort women' were practiced as part of the genocidal policy ~~of~~ ^{on} the Korean people.

As mentioned above, (?).

⁵ See Estimate of the Total Number of the Korean 'Comfort Women' Drafted for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ppendix 2.